

1995.6.19.

「폐가」(廢家, 'The Ruined Cottage')의 사회사(社會史)- 전쟁미망인
마가렛(Margaret)이야기

박 찬 길

“친구여, 슬픔은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네,
지혜의 뜻을 따르려면 그정도면 됐네.
지혜롭게, 즐거운 생각을 하게나. 그리고 더 이상
속된 눈으로 사물의 형태를 읽으려고 하지 말게.”

"My Friend, enough to sorrow have you given,
The Purposes of wisdom ask no more;
Be wise and chearful, and no longer read
The forms of things with an unworthy eye."

(마가렛의 이야기를 끝내고나서 행상인(Pedlar)이 젊은이 '나'에게 한 말)

우리 교구목사는 늘 말했지
우리가 입만 닥치면 좋은 세상 올거라고
그래서 난 입닥치고 있었다네, 숨이 거의 막힐 때까지
마음속으론 짐작하고 있다네, 목사가 날 굶겨죽이려는 걸,
그러나 난 알고있지, 그 친구 악마나 혈뜯으며 호의호식하지만
결국에는 구제받긴 힘든 인생이라는 걸

Our church parson kept telling us long,
We should have better times if we'd hold our tongues,
I've houlden my tongue till I can hardly draw breath,
I think i' my heart he means to clem me to death
I know he lives weel by backbiting the de'il,
But he never picked o'er in his life

(19세기 작자불명의 답시 '불쌍한 면 직조공(The Poor Cotton Weaver)'의 한
대목)*

I.

「폐가」의 코넬(Cornell)판 편집자인 제임스 버틀러(James Butler)에 의하면 이 시의 주된 부분이 처음으로 완성된 것은 1797년 6월경이라고 한다(Butler, x). 위즈위스학자들의 꼼꼼한 원문연구에 힘입어 우리는 이 시가 대단히 복잡한 편집과 개고를 거쳐서 1814년에 와서야 『유람』(*The Excursion*) 1권의 형태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흔히 영국 낭만주의시대의 서곡으로 간주되는 『서정담시집』(*Lyrical Ballads*)의 초판이 출판된 것이 1798년 9월이고(Reed, 244-49), 수록작품들중 대다수가 같은해 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폐가」가 『서정담시집』보다 적어도 수개월 이상 먼저 완성된 작품인 셈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많은 비평가들이 「폐가」가 위즈위스의 시적 재능의 성숙을 최초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여겨왔다.¹⁾ 시적 재능의 '성숙'이라는 말에는 위즈위스시의 변화과

정을 단순한 경향의 변화가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의 단계적 발전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 가령, 「폐가」의 소재이며 당대 수많은 잡지들의 시란을 장식하고 있었던 전쟁미망인의 비극적 이야기만 해도, 워즈워스 자신의 맥락에서는 초기시 『저녁산책』(An Evening Walk)에서는 감상적인 연민의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솔즈브리평원」(Salisbury Plain)에 이르러 사회정치적 항의의 소재가 되었다가, 「폐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양자 어느 것보다도 달리, 시적 제재로서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폐가」에 대한 이러한 비평적 판단에는 워즈워스 자신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있는 『저녁산책』의 감상적이고 과장된 인물 형상화²⁾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서정담시집』에서 「여자유랑인」(‘Female Vagrant’)이라는 제목으로 발췌·출판되었던 「솔즈브리평원」의 사실주의적 형상화보다는 「폐가」의 형상화방식이 시적으로 훨씬 더 의미있다는 가치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폐가」의 본문(text)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서를 쓴 조나단 워즈워스(Jonathan Wordsworth)의 견해는 「폐가」를 선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인데, 그는 「솔즈브리평원」의 내용

*Alasdair Clayre의 「자연과 산업화」(Nature & Industrialization) 144면에서 재인용.

1)이 시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 시의 첫번째 독자인 코울릿지(S.T. Coleridge)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1797년 6월 워즈워스가 살고있던 레이스다운 롯지(Racedown Lodge)에서 저자 자신이 낭송한 이시를 처음 접하고 ‘언어로 만들어진 시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리비스(F.R.Leavis)는 이시를 ‘워즈워스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평한 바있고, 허버트 리드(Herbert Reed)는 이 시에 ‘워즈워스의 향후 발전의 단초’가 들어있고 평하기도 했다. 마크 리드(Mark Reed)는 이 시가 ‘현대 영시전통의 출발점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하기도 했다. (Butler ix에서 재인용)

2)워즈워스는 서곡 8권 533-41행에서 거지 여인의 감상적인 형상화를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한 과부가 고난의 타격으로
 비틀거리며, 어느날 밤, 아니 그날 하루만이 아닐지도 몰라,
 어쨌든 너무나 고통스러워, 혹은 반쯤 마비되어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남편이 잠들어있는 차디찬 무덤으로 찾아간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탐욕스럽게 낚아채였고
 그녀는 그곳에 일년내내 찾아가,
 끊임지않는 눈물줄기로 잔디를 적셔야 했으며,
 또 하늘에선 온갖 비바람이 다 그녀에게 몰아쳐야 했다.

Then, if a Widow, staggering with the blow
 Of her distress, was known to have made her way
 To the cold grave in which her Husband slept,
 One night, or haply more than one, through pain
 Or half-insensate impotence of mind
 The fact was caught at greedily, and there
 She was a visitant the whole year through,
 Wetting the turf with never-ending tears,
 And all the storms of Heaven must beat on her.

중 위즈워스의 향후 시적 발전과정상 유일하게 의미있는 것은 ‘잔인한 아버지’ 장면뿐이라고 단언하면서, 비슷한 제재를 다루고있는 『폐가』야말로 위대한 시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그려지는 인간의 고통에는 위즈워스가 『변방인들』(The Borderers)에서 표현한대로 ‘무한성(the nature of infinity)’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인간의) 고난은 감상적인 가치때문에, 조금후엔 교훈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흥미로운 소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영원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서정답시집 서문의 주제가 될 것이었다. 그것은 후일 위즈워스의 표현을 빌면 ‘무한성’, 그러니까 ‘그것없이는 시가 안되는 그런 무한성’을 지니게 되었다.(59)

즉, ‘무한성’, 혹은 ‘영원성’은 시를 시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은 그러한 요소가 말 그대로 한 작가가 속한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제한을 초월하는 어떤 일반적 속성, 즉 여하한 역사적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폐가』가 당대의 가장 민감한 정치적 소재를 배경으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가장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조나단 위즈워스의 『폐가』예찬의 전제인 셈인데, 이러한 비평적 태도는 19세기 매슈 아놀드(Mathew Arnold)와 같은 인문주의 비평가의 전형적인 태도이기도 하고, 또 문학작품을 작품밖의 맥락과 단절시켜서 하나의 자율적 구조로 파악하는 신비평 이후의 탈역사적 비평경향의 솔직한 반영이기도 하다. 『폐가』의 독특한 비정치성, 혹은 탈세속성이야말로 위즈워스의 시적 성취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위즈워스 당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즈워스비평의 주류로서 권위를 누려왔다.

그러나 적어도 『폐가』에 관한 한, 조나단 위즈워스의 이러한 단계적 ‘발전’론이 가지는 설득력은 1798년을 전후한 위즈워스의 집필상황에 대한 약간의 조사로도 금방 약해지는 것을 알수있다. 가령, 위즈워스는 현존하는 『폐가』의 완결 원고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MS B를 완성하고난 다음에도 여전히 『솔즈브리평원』의 퇴고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793년 이래 최초로 맞이한 출판의 기회에 시적으로 더 열등할 뿐 아니라 1798년 당시의 정치적 입장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솔즈브리평원』의 일부를 MS B 대신 출판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지만 200여년에 걸쳐 확립되어온 위즈워스정전(Wordsworthian canon)의 권위와 시적 제재의 사회역사적, 혹은 인간적 의미를 배제하는 행상인의 근엄한 훈계로 인하여 『폐가』의 등장인물인 마가렛과 로버트(Robert)를 특정한 사회에서 특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고통을 받고 죽어간 인물로서가 아니라 단지 정형화된 하나의 시적 인물들로만 인식하고, 따라서 그들의 창조주인 위즈워스도 프랑스혁명을 옹호하는 급진적 정치팜플렛 『렌다프주교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를 쓴 급진적 개혁가라거나

1790년 중반에 모든 영국개혁가들의 우상이었던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의 정치적 도제로서가 아니라(Roe, 118-98),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성숙해진’ 하나의 시인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폐가에 대한 드퀸시(Thomas De Quincey)의 비평은 워즈워스를 둘러싼 이 모든 신화적 권위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하다. 드퀸시는 열렬한 워즈워스 숭배자요, 제발로 워즈워스를 호반지역(Lake District)으로 찾아가 호반시인집단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으로, 후일 워즈워스가 ‘비둘기집(Dove Cottage)’을 떠나자 그집을 이어받을 만큼 워즈워스남매와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고있었다(Moorman, 115-16, 142).³⁾ 그때문에 드퀸시는 워즈워스뿐만 아니라 「폐가」의 등장인물들도 같은 시대에 같은 사회속에서 사는 사람들로 취급한다. 가령, 로버트의 처신에 관하여 신랄한 도덕적 질책을 가하는데, 요컨대 먹고살기 어렵더라도 처자에게 알지도 않고 입대해버리는 것은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예정한 신의 섭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솔한 일이라는 것이다.(De Quincey, 294-325)의 이러한 주장 자체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볼때 그 온당성에 의문에 여지가 많다. 더우기 문학작품에 오직 ‘문학적’ 질문만 던지도록 배워온 현대의 독자들의 관점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애당초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드퀸시의 질문방식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워즈워스 읽는법’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게 할뿐만 아니라, 「폐가」의 주요등장인물인 마가렛과 로버트가 겪는 고통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사회,정치,경제적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단서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폐가」의 여주인공인 마가렛을 죽어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고통받는 인간의 원형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1790년대 영국에 살던 한 전쟁미망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녀의 비극적 사연에 몇가지 ‘비문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그것은 「폐가」의 <시적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폐가」의 시적 감동은 행상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주의적 태도에서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의해 억눌려지는 작중청자 ‘나’의 보다 인간적 반응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워즈워스가 비참한 한 전쟁미망인의 삶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행상인과 ‘나’의 상반된 관점 사이의 대립이 행상인의 초월주의적 관점에 의한 철학적 결론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고, 당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워즈워스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하는데에도 더 유용하다는 점을 보이기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가렛의 비극적 운명을 세속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

3)드퀸시가 호반의 시인들과 교류한 기록은 그가 쓴 호수와 호반시인들에 대한 회고(*Recollections of the lakes and the lake poets*)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하지 말라는 행상인의 훈계를 교조적으로 수용한 조나단 워즈워스의 독서법보다는 오히려 드퀸시가 그랬듯이 그것을 좀더 대담하게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 마가렛 이야기의 사회적 내용을 우리 독자적으로 새삼스레 따져보는 것이 『폐가』의 시적 감동을 보다 풍성하게 느끼는 또 다른 독서방식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1790년대에 전쟁미망인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계층의 한 유형으로서 아주 흔한 시적 소재들중 하나였다. 워즈워스 자신의 맥락에서도, 1793년에 출간한 『저녁산책』에는 남편을 ‘병커의 납골당 언덕(Bunker's charnel hill)’에서 잃은 여자 거지가 등장하고, 서정담시집에 ‘여자유랑인(Female Vagrant)’이라는 제목으로 발췌 출판된 ‘솔즈브리평원’에서는 남편을 따라 전쟁터에 따라 나섰다가 남편과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존재 안의 소중한 것을 전부 포기(to resign/ All that is dear in being)’(Gill, p. 11.307-8)해야 하는 인간적 댓가를 지불하고 평원을 떠도는 여자거지의 사연이 담겨있으며, 1795년 개정판에는 『폐가』의 마가렛처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빈대상자의 수를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교구관리들에 의해 쫓겨다니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폐가』가 이전의 시들과는 달리 워즈워스의 정전(canon)에 속하는 영예를 누리는 이유는 워즈워스가 마가렛을 독특하게 형상화하고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자유랑인’과는 달리 『폐가』에는 마가렛의 비참한 생활이 전혀 구체화되어있지 않다. 행상인의 서술안에서 마가렛의 현재적 행위는 하염없이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단 하나로 단순화되어 독자에게 제시된다. 그 결과 시속에서의 마가렛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있는 행동도 보이지 못하는 일련의 정지된 상으로만 드러난다. 즉, 그녀는 살아있고 변화하되 어느 한시점에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보이지 못하는 식물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며,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황폐한 삶의 역정을 체현하는 듯한 『폐가』와 자연스럽게 동일시되는 것이다. 시간과 자연의 힘앞에 예외없이 무너져내리는 『폐가』에게 어떻게 하다가 그런꼴이 되었느냐고 묻지않듯 어느새 우리는 마가렛의 딱한 처지의 전말을 묻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폐가』의 퇴락을 슬퍼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퇴락된 모습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매혹되기까지 하고, 뒤이어 마가렛의 퇴락에도 그같은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순간, 그러한 새디즘적 행위의 윤리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훗날 소위 ‘화해의 결론’(MS D, 11. 493-538)을 덧붙이는 것이다.

『폐가』의 서술이 담고있는 논리가 이러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가렛의 사연을 행상인의 서술적 통제 밖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좀더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행상인의 설명에 의하면 마가렛의 인간성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남편 로버트가 그녀에게는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순간부터였다. 남편의 실직이후 닥쳐온 가난에도 ‘활기찬 희망(cheerful hope)(MS B, l. 200)⁴⁾을 가지고 살았으며, 로버트가 떠난지 두달만에 이루어진 행상인의 첫 방문까지만해도 그녀는 행상인의 위로를 받고 충격과 슬픔을 극복할만큼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가렛의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것은 두번째 방문부터였다.

그녀의 얼굴은 핏색하고 야위어 있었어. 몸매도 변했더군.
 그녀는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어찌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열심히 기도를 해야 집에 돌아갈 맘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녀는 탁자에 저녁을 차리며 털어놓기를,
 그녀의 맏아들도 떠났다는 거야.
 마을에서 그 아이를 어느집 도제로 들여보내서,
 심부름꾼 노릇을 한지가 벌써 여러달째라는 거지.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어. ‘저는 변했어요
 이 가엾은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울면서 잠이 들고,
 잠이 깨면 또 울었어요. 제 몸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몸과는 다른 것처럼
 눈물이 넘쳐흘렀어요. 죽을 수도 없었어요.

Her face was pale and thin, her figure too
 Was changed. As she unlocked the door she said,
 'It grieves me you have waited here so long,
 But in good truth I've wandered much of late
 And sometimes, to my shame I speak, have need
 Of my best prayers to bring me back again.'
 While on the board she spread our evening meal
 She told me she had lost her eldest child,
 That he for months had been a serving-boy,
 Apprenticed by the parish. 'I am changed,
 And to myself,' said she, 'have done much wrong,
 And to this helpless infant. I have slept
 Weeping, and weeping I have waked; my tears
 Have flowed as if my body were not such
 As others are, and I could never die.
 (ll. 396-410)

첫번째 방문이래 가장 현저한 변화는 마가렛이 장남을 다른 사람의 도제로 내보냈다는 것과 그녀가 더 이상 ‘마당밭 농기구를 분주하게 사용하지않고(busy with her garden tools, l. 342)’, 이제는 입대전 로버트가 그랬듯이 집을 떠나 ‘멀리까지

4)특별히 명시되지 않는한 앞으로의 본문인용은 모두 James Butler의 코넬판 「페가」의 MS B reading text에 의한다.

돌아다니곤 한다(used to ramble afar, l. 382)'는 사실이다. 이 대목을 두고 드퀸시는 그녀의 '게으름과 멀리 싸돌아다니는 버릇(Sloth, and the habit of gadding abroad)'을 개탄했는데 그것은 마가렛이 생계를 체쳐두고 하릴없이 남편의 행방을 찾아 헤멘 셈이고 그것은 자식을 둔 어미로서 무책임한 자기방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가렛의 '돌아다님'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든간에 저녁끼니때를 놓치지않고 돌아온 것을 보면 마가렛의 방황이 단지 게으름이나 부도덕한 자기방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본문에 분명히 나와있듯이 마가렛은 자기남편의 행방을 알고있었고('남편이 보낸 어떤 낯선 사람편으로/ 그가 먼 나라로 가는 병사들의 부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By one, a stranger, from my husband sent,/ The tidings came that he had joined a troop/ Of soldiers going to a distant island ll. 326-28), 남편의 선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있었을 것이다.⁵⁾ 따라서 두번째 방문에서의 마가렛은 반쯤 넋이 나간채 떠나버린 남편을 무작정 찾아헤메는 낭만적 여주인공의 모습은 아직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마가렛의 생활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로버트가 가출하여 입대한 다음부터이고, 그의 자진 입대는 직조공으로서 그가 실직했기 때문이었다. 로버트의 실직은 단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상적인 삶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을 뜻했고, 그 결과 로버트는 거의 광기에 접근할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ll. 172-243) 그러나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당시 직조업의 관행을 상기해볼 때,⁶⁾ 로버트의 실직은 그의 가내협업자였던 마가렛의 실직은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들의 실직은 로버트로 하여금 얼마되지않는 정부보조금과 구빈혜택의 권리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게할 만큼 절박한 가난을 몰고왔고, 로버트의 그러한 절박한 선택도 마가렛의 생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 것같다. 따라서 로버트가 입대한 후 마가렛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극복이라는 낭만적 문제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⁷⁾

행상인가 두번째 방문에서 감지한 마가렛의 '변화'가 남편의 부재 그 자

5)그 당시의 강제모병제도에 의하면, 특정한 직업이 없는 빈민 남자들은 일단 징병관에 붙잡히면 무조건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만일 자원을 하면 1792년 왕령에 의하여 일정액의 보상금(1-3파운드)을 받을수 있었고, 복무부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때, 로버트의 자원입대는 현명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Emsley, 33-40 참조. 더 자세한 정보는 Rodger, 145-204 참조. 당시 병사들이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에 관해서는 Bamfield, 40 참조. Kopperman의 논문과 Maitland의 논문에는 병사의 가족들이 전쟁터에서 겪는 일등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있음.

6)당시 직조공업의 실태와 지위변화에 대해서는 Thompson의 책 'weaver'부분 참조, 297-346.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Liu의 책도 당대 수공업적 직조공들의 작업관행과 유통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있다.

7)고향에 남아있는 참전병사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Maitland의 논문과 Elmsley, 39-40 참조.

체가 아니라 경제적 곤란에서 주로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말해 그녀의 ‘돌아다님’이 돈을 벌기위해서였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마가렛이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원천은 우선 구빈혜택이 있다. 자진입대한 병사의 가족으로서 마가렛은 공식적으로 구빈혜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빈혜택은 교구단위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아다님’은 표현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⁸⁾ 다음으로는 이웃고장에 일용직 농업노동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당시 여성들의 고용상태를 고려해보면⁹⁾ 이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행상인의 첫번째 방문이후 ‘마당밭 농기구’를 바빠 놀리며 살길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마당밭마저 ‘돈안되는 쇠비름(worthless stone-crop)’(l. 368)과 ‘값어치없는 덩굴풀(unprofitable bineweed)’(l. 372)로 뒤덮일만큼 흉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다른 고장에 일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구걸(begging)에 나섰다고 하는 편이 더 적당한데, 이것도 마가렛이 아이를 집에 두고 혼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가렛은 찢먹이를 집에 혼자 놓아두고 나갔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낄만큼 가슴아파하는데, 당대 거지들의 관행은 사람들로 부터 더 많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일부러 데리고 다녔으며, 자기 아이들이 없으면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남의 아이까지 ‘빌어’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다.¹⁰⁾

따라서 마가렛이 자기 아이를 놓아두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사실상 매춘 행위를 둘러서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¹¹⁾ 우선,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행상인

8) 당대의 빈민들의 실태와 구빈관행에 관해서는 Marshall의 책과 Poynter의 책 참조.

9) Hill의 책 9장 ‘산업분야와 기타직업에서의 여성들’ 197-228 참조. 또 아서 영은 1770년 영국북부를 6개월간 여행하고 다음과같이 적고있다. ‘이 지방에서는 빈민들이 가장 형편없는 농업에서 생기는 일자리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 따라서 여자와 아이들은 4분의 3 이상이 놀고있다.’ 1790년대에 Eden은 ‘교구민들은 거의 전부 낙농가들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풀베는 때를 빼놓고는 농사일거리가 매우 적다. 노동력있는 빈민들은 의복산업이 번창한 이웃지역에 대부분 의존하고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기계가 도입된 이래 수공업적 방직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Hill의 책 239-40, 205에서 재인용.

10) 아첸홀츠(Archenholz)는 1791년에 쓴 ‘영국의 단면(A Picture of England)’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여자거지들은 대개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유아들을 임대한다. 그렇게 해서 행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그애들 몸이 불구인 정도에 따라 하루에 6펜스에서 2실링까지 다양한 임대료를 지불한다. 불구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3실링까지 받고, 심지어 그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나는 언젠가 두 여자거지가 자신들의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중 하나가 자기가 안고있는 아이를 2실링에 빌렸다고 말하자 다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뭐라구, 너 미쳤니? 저렇게 멀쩡한 애를 2실링이나 줬다구? 난 피물을 빌려도 난 2실링 이상 안주겠네.’ Hill, 159. 거지들의 관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Ripton-Turner의 책 참조.

11) 마샬(Dorothy Marshall)에 따르면 18세기말 빈민들의 도덕적 수준은 매우 낮았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생활조건이 부적당해서이기도 하지만(가령, 남녀 구분없이 빈민을 수용하는 빈민작업소[workhouse]),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빈민들에게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기회를 허락하지않음으로써(빈민작업소에 강

에게 ‘저는 변했어요/ 이 가엾은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울면서 잠이 들고, 잠이 깨면 또 울었어요/ 제 몸이 마치 다른 사람의 몸과는 다른 것처럼/ 눈물이 넘쳐흐렸어요. 죽을수도 없었어요.’라고 말하면서 토로하는 도덕적인 자책감은 그러한 맥락에서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행상인이 그녀를 동정하며 바라보자, ‘그녀의 눈꺼풀은 아래로 늘어졌고, 눈길은 아래로 내리깔렸’으며(Her eye-lids drooped,/ her eyes were downward cast, ll. 416-17)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She did not look at me, l.418)’는 것은 마가렛이 느끼는 도덕적 자책감을 잘 뒷받침해준다. 마가렛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행상인은 자신이 줄수있는 최상의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만 마가렛은 제대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그녀가 표면적으로 가장 바라는 로버트의 귀환(실상은 이것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정상적인 삶의 조건)조차도 이제는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되돌이킬 수 없겠기 때문이다.

마가렛의 매춘가능성은 텍스트상에서는 결코 공공연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도덕적 타락은 자연묘사, 특히 정원에 대한 묘사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되는데, 가령, ‘그것은 변했다. 값어치없는 덩굴풀은 그의 꽃봉우리를 펼쳐 놓고/ 양옆에는 흉물스런 꽃덩굴이/ 든든한 담벼락의 장미송이를/ 땅바닥에 끌어내려 굴복시켰다(It was changed:/ The unprofitable bineweed spread his bells/ From side to side, and with unwieldy wreaths/ Had dragged the rose from its sustaining wall/ And bowed it down to earth, ll. 371-75)’와 같은 자연묘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보면 1부에서 마가렛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녀는 죽었다/ 그녀의 뺨위엔 벌레가 기어다니고,/ 장미나 재스민 등 마당꽃들로된 겉옷이 다 벗겨진채/ 이 가련한 오두막은 바람에 몸을 내맡긴다./ 헐벗고 차디찬 토담위를/ 잡초와 무성한 들풀이 찌르고있다(She is dead,/ The worm is on her cheek, and this poor hut,/ Stripped of its outward garb of household flowers,/ Of roses and jasmines, offers to the wind/ A cold bare wall whose earthly top is tricked/ With weeds and the rank spear-grass, ll. 157-62)’와 같은 대목에 포함된 괴이하게 색정적인 이미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만하다.

행상인의 세번째 방문에서는 마가렛이 ‘돌아다니기’를 멈추고 아이에게로 돌아왔다고 서술된다. 아마도 겨울철의 추운 날씨가 그녀의 도덕적 자책감과 어울

제수용하거나 강제모병으로 가족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결혼제도 자체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르첸홀츠는 당시 매춘부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있다. ‘시내에서 먼 곳에 사는 많은 유부녀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알려지지않을 웨스트민스터에 나와 몸을 판다.’ Hill, 43. 조금 다른 경우지만, 전쟁터에 따라간 병사들의 아내에 대해 Maitland는 이렇게 적고있다. “굶주림과 이질, 열병등이 사람과 말을 한줌의 뼈로 만들고나면, 보통때는 옷도 풀썩게 입고 남편들에게 충실한 병사들의 아내들은 굶주린 당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며 빵 반쪽이면 누구에게라도 몸을 팔았다.” Maitland, 110.

러 ‘돌아다니기’를 자연스럽게 멈추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에서 그녀가 아이에게로 다시 관심을 돌렸다는 것과 로버트의 부재를 다시 한번 아프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그러나 마가렛의 그러한 일시적 회복은 궁극적인 파멸에 대한 준비에 지나지않는다. 오래지 않아 아기도 죽고, 후일까지 소식이 없는 것으로보아 로버트 역시 십중팔구 죽었고, 마가렛 자신도 ‘평탄치못한 과부처지(unquiet widowhood)’로 ‘5년’을 기다리다 죽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행상인의 세번째 방문 이후의 상황은 그의 네번째 방문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옮기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평탄치못한 과부처지’를 이렇게 요약하고있다.

친구여, 내가 전해듣기로는,
 그녀는 저기 저 쓰러져가는 정자에 우두커니 앉아서
 안식일의 만나절을 그냥 보내곤 했다네.
 저기, 지금 독버섯의 게으른 머리가 보이는 곳 말이야.
 그러다가 개라도 한마리 지나가면, 그녀는 슬며시
 그늘에서 일어나 먼 곳을 바라보곤 했지.
 바로 이 낡은 의자에 몇시간이곤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녀의 눈망울은 먼데를 향해
 가슴 울렁거리는 것들을 그리면서.

...I have heard, my Friend,
 That in that broken arbour she would sit
 The idle length of half a sabbath day,
 There--where you see the toadstool's lazy head--
 And when a dog passed by she still quit
 The shade and look abroad. On this old Bench
 For hours she sate, and evermore her eye
 Was busy in the distance, shaping things
 Which made her heart beat quick...
 (ll. 485-93)

독버섯의 이미지로 제시되는 마가렛은 이미 인간적인 의지를 거의 다 잃고 하나의 자연물처럼 존재한다. 그녀를 괴롭혀온 모든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않고,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때마다 쫓아가 남편의 행방에 대한 ‘어리석은 수소문’을 하는 것뿐이다. 마가렛의 마지막 근황은 이처럼 한 커트의 사진처럼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로 단순화되어 제시되는데, 이것은 앞서 인용된 바대로 후일 위즈워스 자신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과부에 대한 당대의 감상적 묘사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폐가』가 당대의 감상주의적 잡지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층계급을 소재로한 당대의 감상적 시편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직설적인 교훈주의가 없다는 점이다. 가령 당대 잡지사의 메시지가 대개 하층계급의 고통을 보여 주면서 그들에 대한 동정과 자선의 행위를 촉구하는 데 반해,¹²⁾ 여기서는 그러한 동정심의 무용함을 주장하는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

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¹³⁾ 이러한 입장의 사회정책적 표현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자유방임론이나 토마스 앨콕(Thomas Alcock)의 구빈철폐주의(abolitionism)에서 이미 주어졌었다고 할 수 있는데,¹⁴⁾ 워즈워스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표방했었는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다 하더라도, 이 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행상인의 서술방식의 초점이 ‘나’의 반응으로 집약되는 바, 마가렛의 비극적 사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 즉 보통독자의 고통과 자선심을 근본적으로 억누르는 데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의도가 서두에서 이미 인용된 행상인의 도덕적 권고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서술 자체가 이미 그러한 의도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행상인의 묘사는 마가렛의 고된 삶을 교정가능한 사회적 모순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고 불가역한 자연적 과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행상인가 마가렛의 낭만적 좌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그녀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었을 사회적 조치에 독자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 네번에 걸쳐 이루어진 방문이 네 계절이 한 주기를 도는 것과 암암리에 일치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행상인이 마가렛의 몰락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철저하게 국외자로 남아있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가렛의 비극적 삶의 과정을 계절의 순환과 같은 자연적 질서의 표현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마가렛의 인생을 ‘자연화’하는 주된 도구는 무엇보다도 「폐가」그 자체다. 행상인의 서술안에서, 마가렛은 그녀의 몰락의 단계 단계마다 계속해서 오두막에 비유되는데, 오두막이 점점 황폐해져 「폐가」로 되어가는 과정이 마가렛의 도덕적 타락과 인간성 폐괴의 물질적 표현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행상인은 마가렛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마가렛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에 상응하는 묘사를 제시하다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로 귀결한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의 이 초라한 오두막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네. 왜냐하면 시월의 첫서리가 내릴때
 튼난 곳을 메우고, 새로 만든 짚으로
 푸룻푸룻 잡풀이 돋는 초가지붕을 이어줄 손길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그녀는 그렇게 앉아서 긴 겨울을 냈다네.
 이 빼앗긴 집이 서리와 해빙과 비로 하여 약해질 때까지,

12)당대 잡지시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서는 Mayo의 논문 참조.

13)워즈워스의 이러한 입장은 워즈워스가 비슷한 시기에 쓴 ‘킴벌랜드의 늙은 거지(Old Cumberland Beggar)’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대의 구빈법논의와 관련하여 이 시를 자세히 분석한 글로는 Simpson, 162-74, Chandler, 84-92, Harrison의 글과 Koch의 글 참조. 당대의 구빈법논쟁에 대한 자세한 소개서로는 Marshall의 책 ‘구 구빈법, 1795-1834(The Old Poor Law, 1795-1834)’와 Poynter의 책과 Himmelfarb의 책 64-132 참조.

14)자유방임주의나 구빈철폐주의는 모두다 제도화된 구빈제도의 불필요성이나 해악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버크의 입장은 Poynter, 52-55, 앨콕의 입장은 40-42 참조.

아무것에도 개의치 않고, 외롭게. 그녀가 잘 때면 저녁의 습기가
 그녀의 가슴을 싸늘하게 식혔고, 폭풍우가 치는 날은
 난로 바로 옆에서도, 그녀의 누더기 옷이 바람에 나부꼈다고 해.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이 비참한 곳을 사랑했고, 세상을 다 쥐도
 떠나려하지 않았다네. 그리고 저만치 길가의 한 구석과
 이 험벗은 의자도 그녀에겐 여전히 정다왔지,
 그녀 가슴에 완강하게 뿌리박은 그 한가지 고통스런 희망때문에.
 친구여, 그리고 병든 그녀는 바로 여기에 남아, 여기에서 죽었다네.
 이 폐허가 된 담벼락안에 살았던 마지막 사람이었던 셈이지.

...Meanwhile her poor hut
 Sunk to decay, for he was gone whose hand,
 At the first nippings of October frost,
 Closed up each chink and with fresh bands of straw
 Checqered the green-grown thatch. And so she sate
 Through the long winter, reckless and alone,
 Till this reft house by frost, and thaw, and rain
 Was sapped; and when she slept the nightly damps
 Did chill her breast, and in the stormy day
 Her tattered clothes were ruffled by the wind
 Even at the side of her own fire.--Yet still
 She loved this wretched spot, nor would for worlds
 have parted hence; and still that length of road
 And this rude bench one torturing hope endeared,
 Fast rooted at her heart, and here, my friend,
 In sickness she remained, and here she died,
 Last human tenant of these ruined walls."
 (ll.512-28)

이 마지막 묘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은 오두막이 그 거주자의 물질적, 정신
 적 몰락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체가 그녀의 유기적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두막의 인간화와 마가렛의 자연화가 완성되는 단계에 도달하자, 그
 둘을 구분하는것은 무의미해지고, 둘다 여러가지 자연적 풍화작용의 희생물이라는
 공통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폐가』의 전단계인 1793년판 『솔즈브리평원
 』에서는 사회적 모순의 공동의 피해자간의 상호애정이 유일한 위안으로 제시되었
 던데 반해, 여기에서는 그러한 인간적 유대감이 마가렛과 오두막의 비인간적 융합
 으로 대체되었고, 그 결과 오두막과 함께 쇠퇴하는 마가렛의 비극적 운명이 독자
 에게는 덜 고통스럽고 덜 부당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오두막과 마가렛의 이러한 동일시가 낳는 효과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마가렛의 비극적 운명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의 한 부분이 되고, 그녀의
 억울한 고통에 대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자연을 상대로 사회정치적
 차원의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본원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그녀의 억울한
 고통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궁극적으로 보상받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행상인의
 서술방식에 구조적으로 내재된 도덕적 메시지인 것이다.

마가렛의 고통스러운 몰락과정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 주재되는 자연스러

운 과정이라는 메시지의 설득력은 버크(Burke)식의 자유방임론이 갖는 이론적 적합성보다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들의 미학적 힘에 더 크게 의존한다. 마가렛의 몰락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자연묘사의 아름다움도 그렇거니와 보다 더 중요하게는 영시의 전통 안에서 폐허화된 건축물에 흔히 부여되는 ‘장엄함(the sublime)’ 혹은 ‘그림같은(the picturesque)’이라는 미학적 개념들의 영향력이 ‘이 폐허가 된 담벼락안에 살았던 마지막 사람’이었던 마가렛의 ‘그림같은’ 이미지는 그 사회적 내용이 가진 윤리적 함축을 억누르고 그 자리를 ‘장엄함’이나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인식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¹⁵⁾ 잡초더미에 뒤덮여있는 무너진 오두막이 아름답고, 장엄하듯이, 그것과 거의 다르게 없는 마가렛의 무너지 인생의 사연도 고통스럽기는 커녕 아름답고 장엄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즈워스 자신의 입장에서든 그런 가능성이 가지는 윤리적 문제점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해의 결론’을 덧붙여서 무마하려고 한 것이며, 그것도 부족해서 『폐가』의 출판을 미뤘을 뿐만이 아니라, 행상인부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서곡’이라는 시적 자서전으로까지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위즈워스의 시작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마가렛을 자연화하여 결국 그녀의 고통스럽 삶 기록을 미학적 쾌락의 원천으로 삼는 서술방식의 윤리적 문제점은, 앞서 우리가 드린 시적인 질문을 통해 마가렛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상기해 보았을 때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가령, 마가렛이 몰락의 사회적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빈민을 둘러싼 당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참고한다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것같은 오두막의 ‘자연적인 쇠락’의 그 ‘자연적’이고 따라서 불가역한 성격조차도 재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가렛이 그 오두막의 ‘폐허가 된 담벼락안에 살았던 마지막 사람’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가렛이 죽자마자 교구의 관리들이 와서 그 오두막을 일부러 허물어버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당시의 교구관리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교구내의 빈민구호대상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었고, 인근 교구의 빈민이나 뜨내기 빈민이 거처를 옮겨 자기 교구내에 새로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두막과의 공공연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폐가』의 마

15) 위즈워스의 이러한 의도는 ‘그림같은’의 미학적 개념과 관련하여 ‘폐허’가 갖는 기능과 잘 들어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앤드류스(Malcolm Andrews)에 의하면 ‘폐허’는 전형적으로 ‘그림같은’ 대상으로서, ‘인간욕망의 허망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두막’은 ‘시골의 평화로움의 상징’으로서 목가적 욕망과 호레이스적인 욕망의 행복한 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두막의 이미지는 그 자체가 거기에 사는 빈민들이 부지런하고도 여하튼 즐겁게 살고있다는 환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Andrews, 7, 44. ‘그림같은’ 미학의 일반론에 관해서는 Hussey의 책과 Hipple의 책 참조. ‘그림같은’의 미학의 정치적 함축에 관해서는 Andrews의 책과 더불어 Barrell의 책 참조. ‘폐허’와 관련된 영시의 전통과 관련해서는 Janowitz의 책 참조.

지막 부분에서 강조된 비, 바람, 서리 등 자연적 요인들 보다는 이러한 교구관리들의 인위적인 조치가 오두막을 폐허로 만든 더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III.

직조기의 보급과 더불어 불가피해진 수공업적 직조업의 몰락, 1793년 2월에 발발한 영불전쟁과 부족한 병력의 보충을 위한 강제모병, 1794-5년의 유래없는 흉작과 기근이라는 사회적 환경¹⁷⁾에서 실업과 흉작으로 인한 기근에 시달리다, 남편은 자원하여 참전하고, 부인은 정부의 보상금과 장남의 도제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가 어려워, 아이를 놔두고 매춘행위로 간신히 연명하다가, 마침내 남은 아이마저 잃고, 마침내 반쯤 실성하여 폐인처럼 지내다 그대로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재구성해 낸 마가렛의 고난의 실제 사회적 내용이다.

사실상 이러한 마가렛의 슬픈 사연은 그 당시 수많은 시인들이 소재로 삼았을 만큼 흔한 사례의 하나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드퀸스와 같은 당대의 독자들은 자세한 설명이 없이도 그 내용들을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있었을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분명해졌다시피 위즈워스가 이러한 이야기의 사회적 성격을 회색시키면서 그것을 본원적인 인간고난의 상징처럼 형상화했으며, 나아가 그것에 어떤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 것은, 요즈음 신역사주의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위즈워스가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회정치적 내용을 억누르거나 배제시켜서 결국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¹⁸⁾ 것처럼 누구나 다 잘 아는 소재를 당대의 잡지사들과는 달리 보다 효과적으로 형상화하여, 예술적으로도 의미있고 도덕적으로도 건강한 정서를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애써 복원한 마가렛이야기의 사회적 내용은 위즈워스와 당대의 독자들 사이에서는 설명이 없이도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되어있었고, 이 이야기를 듣는 ‘나’의 반응 역시 행상인의 서술 자체와 더불어 그것에 얽힌 당대의 사회적 내용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위즈워스의

16)마살은 다음과같이 적고있다. ‘그러나 교구관리인들은 그러한 비난에도 무감각했고, 계속 빈민 노동자들의 결혼을 구빈제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결혼은 대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구에서 자기 구역내에 정착하려는 어떠한 기혼노동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몰아내려한 것은 그러한 위협을 막기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에 만족하지않고, 교구 집행부는 이미 정착한 빈민들 사이의 결혼을 막기위하여 (빈) 오두막들에 대한 철거를 적극 장려했다.’ 206.

17)1790년대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요령있는 해설로는 Elmsley의 책과 Goodwin의 책, Thompson의 책을 참조하시오.

18)마조리 레빈슨(Marjorie Levinson), 알렌 리우(Alan Liu), 데이비드 심프슨(David Simpson) 등의 비평에서는 ‘역사의 억압’ 내지 ‘역사의 제외’의 흔적을 읽는 것이 주된 관심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독자들이 하여금 아주 치밀한 서술전략가로서의 위즈워스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화해의 결론’의 예술적 초점은 단순히 마가렛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과 연민을 느끼는 평범한 독자에게 행상인의 범신론적 스토이씨즘을 덧씌워서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가지 상반된 반응방식의 대립과 긴장 자체를 극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이러한 도덕적 결론에 대하여 위즈워스 스스로 만족했던 기간이 대단히 짧았다는 사실과, 또 다른 형식의 인간의 고난의 경험들이 『폐가』 이후 위즈워스 시편들 안에서 수행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역할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¹⁹⁾

그러하다면, 『폐가』가 쓰여지고 읽히던 당시의 맥락에서는 『폐가』가 독자들에게 주는 독특한 시적 감동의 중요한 부분이 '나'의 동정심과 공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고, 그러한 동정심과 공감은 그 당시에 영국사회에 산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지고있는 마가렛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후 현대의 독자들에게 행상인의 범신론적 스토이씨즘만이 위즈워스의 진정한 목소리라고 믿게 된 것은 조나단 위즈워스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바, 주류 낭만주의비평의 탈역사적 성향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에 입각한 추상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옹색한 독법에서 『폐가』를 구하는 방법로서는 그러한 독법의 탈역사적 경향을 정치적 혹은 도덕적 관점에서 비판하거나 이론적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것보다는 행상인의 서술에서 당대 독자들이 당연하게 떠올렸던 무너진 오두막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홀(Hall) 주교가 묘사한 또 다른 오두막의 정경 같은 것을 마가렛의 폐가의 아름다운 이미지에 겹쳐보는 것이 더 실속있는 일이 아닐까.

한 칸의 불품없는 오두막, 주님은 아시는지
역새풀 지붕엔 더러운 검댕만 그득
한 치 이상 두껍게 끼어 검은 황야의 눈썹처럼 빛나네
덜개없는 굴뚝에 연기 피어오르고
침상 다리밑엔 가축을 길러
돼지들만 천정들보를 머리로 들이받네²⁰⁾

19)Averill의 책 참조.

20)Harrison의 책에서 재인용. 번역은 이 책의 번역자의 것임.

Works Cited

- Andrews, Malcolm, *The Search for the Picturesque: Landscape Aesthetics and Tourism in Britain 1760-1800*, Aldershot, 1989.
- Averill, James H., *Wordsworth and the Poetry of Human Suffering*, Ithaca and London, 1980.
- Bamfield, Veronica, *On the Strength: The story of the British Army Wife*, London, 1974
- Barrell, John, *The Darkside of the Landscape: The rural poor in English painting 1730-1840*, Cambridge, 1980
- Chandler, James, *Wordsworth's Second Nature: A Study of the Poetry and Politics*, Chicago and London, 1984.
- De Quincey, Thomas, 'On Wordsworth's Poetry', *The Collective Writings of Thomas De Quincey*, Ed. David Masson, 14 vols, Edinburgh, 1890.
- Elmsley, Clive, *British Society and the French Wars 1793-1815*, London, 1979.
- Harrison, G. L., 'Wordsworth's "The Old Cumberland Beggar": The Economy of Charity in Late Eighteenth-Century Britain' *Criticism* 30 (Winter 1988).
- Harrison, J.F.C., *The Common People: A History from the Norman Conquest to the Present*, London, 1984.
- Hill, Bridget, *Eighteenth-Century Women: An Anthology*, London, 1984.
- Himmelfarb, Gertrude, *The Idea of Poverty: England in the Early Industrial Age*, London and Boston, 1984.
- Hipple, Jr., Walter John, *The Beautiful, The Sublime, & The Picturesque in Eighteenth-Century British Aesthetic Theory*, Carbondale, 1957.
- Hussey, Christopher, *The Picturesque: Studies in a Point of View*, London, 1927.
- Janowitz, Anne, *English Ruins: Poetic Purpose and the National Landscape*, Oxford, 1990.
- Koch, Mark, 'Utilitarian and Reactionary Arguments for Almsgiving in Wordsworth's "Old Cumberland Begger"', *Eighteenth-Century Life* 13, November 1989.
- Kopperman, Paul E., 'British High Command and Soldiers' Wives in America, 1755-1783', *Journal of the Society for Army Historical Research* 60, 1982.
- Levinson, Marjorie, *Wordsworth's Great Period Poems: Four Essays*, Cambridge, Mass., 1986.
- Liu, Alan, *Wordsworth: The Sense of History*, Stanford, 1989.
- Maitland, D.D., 'The Care of the Soldier's Family', *Journal of the Royal Army Medical Corps* 94, no 3, March 1950.
- Marshall, Dorothy, *The English Poor in the Eighteenth Century: A Study in Social and Administrative History*, London, 1926.
- Marshall, J.D., *The Old Poor Law, 1795-1834*, London, 1968.
- Mayo, Robert, 'The Contemporaneity of the Lyrical Ballads', *PMLA* 69, 1954.
- Moorman, Mary, *William Wordsworth, A Biography; The Early Years: 1770-1803*, Oxford, 1957.
- Poynter, J.R., *Society and Pauperism: English Ideas on Poor Law, 1795-1834*, London, 1969.
- Ripton-Turner, C.J., *A History of Vagrants and Vagrancy and Beggars and Begging*, 2 vols, London, 1887.
- Rodger, N.A.M., *The Wooden World: An Anatomy of the Georgian Navy*, London, 1986.

- Roe, Nicholas, *Wordsworth and Coleridge; The Radical Years*, Oxford, 1988.
- Simpson, David, *Wordsworth's Historical Imagination*, New York and London, 1987.
- Thompson, E.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Harmondsworth, 1968.
- Wordsworth, Jonathan, *The Music of Humanity*, London, 1969.
- Wordsworth, William, *The Ruined Cottage and The Pedlar*, Ed. James Butler, Ithaca, 1979.
- Wordsworth, William, *The Salisbury Plain Poems*, Ed. Stephen Gill, Ithaca, 1975.

Abstract

A Reading of 'The Ruined Cottage'- A Social History of a War Widow

Chankil Park

'The Ruined Cottage' has long been taken as the first major poetic achievement that betokens Wordsworth's 'growth' as a poet. The critics' appreciation of 'The Ruined Cottage' as a work of art is in fact based on the implicit assumption that Wordsworth's political awareness is inimical to his poetic genius, for their preference of 'The Ruined Cottage' to 'Salisbury Plain Poems' has much to do with the pedlar's distinctive narrative tactic which enables the most apolitical rendering of the most political issues at the tim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read 'The Ruined Cottage' as a story of an impoverished war widow of the 1790s' England in order to challenge such underlying assumption of the main current Wordsworth scholarship. What is intended in this historically informed reading of 'The Ruined Cottage' is not to undermine its entirely deserving status in Wordsworthian canon but simply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seemingly 'natural' process of Margaret's moral and physical deterioration is in fact socially determined and that its original poetic appeal to the contemporary readers derived not so much from the pedlar's transcendental understanding of human suffering as from 'I's humane, sympathetic response to a war widow's socially rectifiable misery. Eventually, such a reading will suggest that the modern appreciation of 'The Ruined Cottage' is not just an expression of its poetic merit, but more significantly another piece of evidence that testifies to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modern critical practices.